

## 이토

이토(학명: Parahucho perryi)는 연어의 일종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입니다. 과거에는 도호쿠 지방 북부에서도 서식했지만, 개체수가 감소해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홋카이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 귀중한 자원

홋카이도의 선주민인 아이누는 이토를 잡아 식량으로 삼았고, 이토의 튼튼한 가죽을 사용해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40 년간 이토의 개체 수는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점차 감소해 멸종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장수 물고기

이토는 최대 20 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어과 물고기는 산란이 끝나면 죽지만, 이토는 일생 동안 여러 번 산란합니다. 이토의 성어는 보통 차분한 은색을 띠며 작은 반점이 있는데, 산란기에는 수컷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토의 성어는 몸길이 1m 정도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 홋카이도에서 2.1m 크기의 이토가 잡혔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토는 구시로 습원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습니다. 어린 이토는 주로 수생곤충을 먹지만, 성어가 되면 다른 물고기, 개구리, 쥐, 뱀 등 더 큰 동물을 찾아 먹이로 삼습니다.